

‘세계수영대회 북한 참가’ 흥행 최대 이슈

슈퍼콘서트 한류팬 집결... 개막전 세계 관심몰이 성공
선수단·예술단 참가 추진... 남북 화해무드·정부 지원 유도

성공 기대감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기원 슈퍼콘서트’가 28일 국내외 한류팬의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면서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흥행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특히, 개막 전 수영대회 흥행은 세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이끌었다면 개막 이후에는 북한 선수단의 참가가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도 북한선수단 참가에 따른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서 대회가 치러졌기 때문이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현재 외국인 법인·소득세 납부 문제와 함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레거시(대회유산) 사업 등을 앞두고 있어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태다.

대회의 필수 요소인 스폰서 확보에도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따라 북한 선수단 참가를 넘어 남북 단일팀 구성과 정부의 지원 등이 향후 수영대회의 가장 큰 흥행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는 “슈퍼콘서트를 계기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문의와 관심이 부쩍

늘었고, 콘서트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도 충분히 수영대회를 홍보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선수단 참가와 관련해서는 “광주시와 함께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개선된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정부부처 및 FINA와 협의를 거쳐 북한 선수단뿐만 아니라 예술단, 응원단 등의 참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광주시는 여자 수구 단일팀 구성제안을 비롯해 북한 정상급 예술단의 광주공연, 남북 청년들로 구성된 공동응원단의 남북선수 경기 응원 등 문화·체육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를 제안한 상태다.

앞서 지난 2월 14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남·북·IOC 3자 회담에서도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통해 북한 체육상에게 북측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초청 사항을 전달했다.

세계수영연맹(FINA)도 북한 선수단 참가 비용과 중계권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속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다.

지난 2월 25일에는 광주를 방문한 FINA 코넬 마르클레스쿠 사무총장이 “그 동안 북한이 FINA 대회에 불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참가할 것으로 확신한다. 북한에 현재 진행중인 엔트리 등록 등 참가를 위한 요청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북한선수단 참가 결정이 늦어지



28일 '2019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기원 슈퍼콘서트'가 진행되는 광주 서구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차량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고 있는 것은 최근 북미, 남북 간의 분위기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정부 관심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를 열어 수영대회 개최와 관련해 각 부처의 지원사항을 점검하고 법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 등은 미온적이다. 현재 조직위원회가 대신 납부해야 할 외국 법인·개인의 법인·소득세 50억여원을 마련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이에 광

주시는 평창동계올림픽처럼 이번 대회에서도 외국 법인·소득세를 감면·면제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선수촌·부대시설 공사 내달 마무리 6월초 입촌식·시설 테스트 이벤트

남은 일정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와 임원, 보도진 등이 사용할 선수촌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경기장 공사도 막바지로 접어드는 등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작업이 순항하고 있다.

28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광산구 우산동 송정공공아파트를 재건축 방식으로 추진한 선수촌이 완공돼 최근 조합으로부터 인수를 받았다.

이 아파트에는 대회 참가 선수와 임원 4000여명, 미디어 관계자 2000여명 등 모두 6000여명을 수용하게 된다. 선수권대회가 끝난 후에 열리는 마스터스 대회 출전 선수 6000여명도 선수촌에서 머문다. 현재 선수촌 아파트는 외부 공사를 마무리

하고 내부 시설물을 보호하는 보온재 마감공사와 함께 외부 부대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직위원회는 부대시설 공사를 오는 5월 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부대시설 공사가 끝나면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7월 2일 사전 공개에 이어 5일 개촌식을 진행한다. 이후 6월 입촌식을 하고 대회 개막 전날인 11일까지 각각 선수단이 선수촌에 입주하게 된다.

경기장 공사도 순조롭다. 경영·다이빙 경기장은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 관람석을 3393석에서 1만648석으로 늘리고 각종 운영시설도 두 배 이상 확충해 주경기장으로 활용한다. 수구경기장이 열리는 남부대 축구장은 임시수조 2개와 4340석의 관람석을 설치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아티스틱수영 경기가 열리는 염주종합체육관은 임시수조 2개를 설치하고 운영실과 관람석을 5360석으로 개보수 중이다. 하이다이빙 경기장인 조선대 축구장은 임시수조 1개와 관람석 3027석을 마련 중이다.

또 장거리 수영인 오픈워터수영은 여수 엑스포해양공원에 2075석 규모의 관람석과 폰툰(출발대)을 설치할 예정으로 이번 달에 착공된다.

시설공사가 마무리되면 6월 초에 대회 시설을 이용한 테스트 이벤트를 개최해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개회식은 7월12일 오후 8시부터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빛의 분수’를 주제로 700여명의 출연진이 참여한 가운데 펼쳐진다.

폐회식은 7월 2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개최되며 ‘아름다운 순환’을 주제로 광주에서 시작된 평화의 물결이 온 세계로 순환하는 내용을 남도의 춤과 가락으로 표현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경기장 주변 주차장·식당·숙박시설 태부족

선수촌↔경기장 이동 대책·관광정보 부실도 지적

남은 과제

28일 열린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기원 슈퍼콘서트’는 수영대회 개막을 앞둔 광주시에 많은 숙제를 남겼다. 3만여명에 달하는 관광객과 국내외 한류 팬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을 때의 숙박, 교통, 진행 등의 경험은 국제스포츠 행사를 치르기 전 모든 상황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 전에 선수와 임직원인 정해진 시간에 이동해야 하고, 관중도 불편하지 않도록 숙박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이날 광주시는 행사장인 월드컵경기장 주변을 비롯해 광주 전역의 교통혼잡 최소화와, 관광객 이동편의, 교통안전 등을 위한 대책을 진행했다. 경찰이 광주시와 자치구 공무원,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자원봉사자 200여명을 별도 배치해 교통안전과 질서유지를 지원했고, 택시 부재도 풀었다. 또 외국인 관광객 수송을 위한 200대의 전세버스 등 총 500대의 전세버스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버스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 외국인 관광객의 주차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반면, 승용차 이용자를 위한 임시 주차장이 풍암 호수공원 주차장과 인근 공공기관, 광주초등학교와 화정남초등학교 등 주변 초등학교 등지에 745면이 마련됐지만 밀려드는 관광객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날 관광객이 대중교통으로 몰렸고, 택시를 잡는데도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행사를 앞두고 이날 오후부터 밀려드는 차량으로 월드컵경기장 일대에서 극심한 혼잡을 빚기도 했다.

월드컵 경기장 주변의 부족한 식당 등도

문제였다. 인근 몇몇 식당은 평소보다 5배가량 많은 손님이 밀려들었고, 일부 식당은 재료가 떨어지기도 해 광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애를 먹었다. 또한 일부 식당은 고기를 주문한 관광객에게 별도 요금을 받고 야채를 지급해 항의를 받기도 했다. 식당에 대한 정보도 부족해 관광객들이 음식 선택에도 어려움이 컸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광주시가 교통, 안전, 숙박 등 특별대책을 마련했지만, 수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행사에는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더욱 철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광산구 우산동 송정공공아파트에 마련된 선수촌과 경기장간 선수 이동에 따른 교통 대책 그리고 일약한 광주지역의 숙박시설과 경기장 주변의 부족한 음식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엘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판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엘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1566-9988

돈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돈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신세계안과 옛.밝은광주안과